



“작은것도 함께 나누며 살래요”

‘나눔의 손잡기’ 성금 1차 회향
종립학교 학생 72명 산사체험
장학금 총 2700여만원 전달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제식.



현대불교 위령관 부국장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종립학교 학생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제1회 나눔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경기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의 모습.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산사체험을 통해 새롭게 느껴져서 참 좋아요.”

11월 27일, 강화도 전등사(주지 계성) 저녁예불에 참석한 72여명의 불교 종립 중·고등학생들이 신선한 산사체험 소감을 털어놓는다.

이날 행사는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김광삼)이 올 1년 동안 벌인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조성한 ‘나눔 장학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종립 중·고등학생들에게 불교를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자리다. 동대부중·고, 명성여중·고, 진선여중·고, 광동중·고, 광동여고, 청담중·정보통신고, 영석고 등 12개 종립학교에서 총 72명의 학생들과 15명의 교법사, 심학교사, 지도교사가 참석했다.

입제식에서 “사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던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이 좌중을 둘러보다 저런 발을 주무르던 막내 다희(14·명성여중 1)에게 말을 건넨다.

“다리를 쭉 뻐다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앞으로 숙여봐, 아직도 발이 저리니?”

“어? 스님,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다희는 마냥 신기하기만 한 모양이다.

레크리에이션과 강의가 준비된 ‘강화월드’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어둑해진 산길을 내려가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좋은 벗을 많이 사귀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좋은 벗 ‘선우’입니다. 지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범준 대원장사 상임법사의 힘찬 불교 강의가 친구들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오후 8시, 아이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성훈 선재 이벤트 실장이 무대로 올랐다. 이성훈 실장은 학교별로 모여 앉았던 자리를 뒤섞어 버렸다. 그러나 어색함을 바꾸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첫 게임은 먼저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빙고’를 외치는 게임.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다음은 풍선돌리기. 음악이 나오는 동안 풍선을 돌리다가 멈추는 순간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하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벌칙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해졌다. 일부러 벌칙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실력을 뽐내고 싶은 모양이다. 레크리에이션은 당초 1시간 30분의 예정시간을 넘어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튿날인 11월 28일 강화월드의 대강당에서

제1회 ‘나눔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서울·경기지역 12개 종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72명의 학생에게 2700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는 시간이다. 장학금은 불교계 곳곳에 배포된 7천여개의 ‘나눔의 저금통’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마련됐다.

장학금 전달자로 나선 현대불교신문사 위령관 편집국 부국장은 “나눔의 장학금을 받는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량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교법사단 김형중단장(동대부고)은 “이번 행사는 종립학교에 다니면서도 피상적으로 불교를 접했던 학생들에게 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보시의 가르침을 피부로 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조계종 종립학교가 진각종 진선여중·고, 의정부 영석고와 함께 참가한 첫 행사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민선현(광동여고 2)양은 “많은 불자들이 준 나눔의 마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조그만 것도 함께 나누면서 살래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했다.

김원우·고영배·박봉영·김은경 기자

“김장김치 나눠드려요”

조계사·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보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정신은 부처님의 마음이자, 우리의 마음입니다.”

12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김치를 담는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발 땀을 흘리며 사중스님들이 조계사 신도회원과 함께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벌이는 현장. 새벽 6시부터 시작된 김장은 점심 무렵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김과 앞치마, 두건으로 무장한 봉사자들의 얼굴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밝기만 했다.

“며칠 전부터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작업에 들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 김치로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양식을 마련한다 생각하니 힘이 불끈 솟아오르네요.” (이연숙·신도회장)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후원과 신도들의 자원봉사로 의미가 더욱 깊었다.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종로지점에서 배추 1000포기와 10kg 쌀 150포기를 후원하고, 봉사직원들을 중심으로 20명의 직원들이 이날 김장을 도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1000포기는 쌀과 함께 개별 포장돼 종로구청에 위탁,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쪽방생활자들에게 12월 10일 전달될 계획이다. (02)732-2115

이 같은 나눔의 손길은 조계사뿐만이 아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신김장합복지



조계사 사중스님들과 신도들이 2일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관, 한솔종합복지관, 강릉종합복지관, 서울노인종합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단체들은 각각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지체

장애인 등의 겨울나기를 위해 다양한 나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나눔의 손잡기’ 사회복지언론인상 수상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 선정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이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11월 27,28일 경주 하일라 콘도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양정형소년수련관 관장 범산, 화명복지관 관장 유정 스님, 부산시 사회복지과 석희윤과장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복지사업의 발전과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에 시상하는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 캠페인으로 자비의 실천을 이끌어낸 현대불교신문사의 나눔의 손잡기’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열린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제 6차 연수회에는 개금복지관, 화명종합복지관, 용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불교 복지에 종사하는 200여명이 모여 복지발전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장 혜총 스님이 현대불교 사장만 이사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수회는 석희윤 부산시 사회복지과장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산시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레크리에이션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됐다.

천미희 기자

■ 도와주세요

골수이형증 앓는 새봄이



골수이형증(골수조혈모세포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인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여고생 이새봄(16·사진).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되는 혈액질환을 앓으면서 학교도 휴학했다. 집중적인 관찰치료가 필요한 새봄이는 현재 한양대 병원 무균실에 누워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동생과 15평 임대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새봄이가 아프기 전까지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다. 올해 8월 새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난은, 가족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봄이 아빠의 자영업의 실패로 부채를 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병원비 1500만원도 사체를 빌려 해결했기 때문이다.

골수이식수술을 하면 새봄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막노동하는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02) 734-8050 생명나눔실천본부 김원우 기자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가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냐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